



제목	Göreme: Open Air Museum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Demir Color Kartpostal ve Turi
발행일	2002.
저자	Murat E. Gülyaz
출판도시	Istanbul
페이지수	64
ISBN 또는 ISSN	978-9759722708

내용 요약

“괴레메(Göreme)”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이란 뜻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자들을 피해 눈에 띄지 않는 지하나 동굴 속에 교회와 생활공간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초대 교회 시절 로마 시대와 오스만 터키 시대에는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 숨어든 기독교인들과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동굴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AD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로마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박해는 없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부패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어 굴을 파고 생활하면서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런 교회들이 1년의 날짜들과 같은 숫자의 365개나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30여개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16개의 동굴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그 밀집된 동굴교회를 발굴하여 그대로 야외박물관으로 만든 말 그대로 “Open Air Museum”이다.

이 책에 소개된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동굴교회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 곳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는 인류회화사에서 가장 오랜 된 그림 기술 또는 형태이며 회반죽을 벽면에 바르고 수분이 있는 동안 채색하여 완성하는 회화로서 이러한 미술양식은 종교성과 서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세 말에는 이탈리아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